

Reference 작성방법에 있어서 외국문헌과 국내문헌의 비교

인제의대 백병원

이 인 순

연세의대 도서관

김 혜 양

Reference 작성법에 있어서 외국문헌과 국내문헌의 비교

외국의 많은 Biomedical Journal 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작성되는데 비해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The Vancouver Style), 국내의학잡지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잡지의 투고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데 그것마저도 투고규정이 각 잡지마다 다르고 투고규정에 맞지 않으면 편집과정에서 고쳐져야함에도 그렇게 되지를 않아, 많은 Reference를 접하는 의학사서의 입장에서 한번 조사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검토하게 되었다.

국내의학잡지중 간호학, 치의학 관계잡지는 제외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의학잡지중에서 다음의 23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참고문헌 기재에 대해서 조사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잡지

1. 가정의
2. 경희의학
3. 제명의대논문집
4. 고려대학교의과대학문집
5. 고신대학의학부논문집
6. 기생충학잡지
7. 대한내과학회잡지
8. 대한미생물학회지
9.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10. 대한의학협회지
11.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2. 동아의대학술지
13. 부산의대학술지
14. 순천향대학논문집
15. 이화의대지
16. 인간과학
17. 인제의학
18. 전북의대논문집
19. 한양의대학술지
21. Annals of Dermatology
22.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3.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
24. Yonsei Medical Journal

주로 외국의 의학잡지는 약 300여종이 Vancouver style이라는 Form에 맞추어 Reference를 쓰는데 여러 분께서 잘 아시는 Am J Cardiol, Am J Dis Child, Am J Med, Am J Surg, Ann Surg, Ann Thorac Surg, Am J Psychiat, Am Rev Respir Dis, Anaesthesia, Br Med J, JAMA, New Engl J Med 등이 이에 속하지만, 우리가 구독하는 많은 잡지가 The Vancouver style을 따른다.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Bangladesh, Colombia, China, Canada, Malaysia, Denmark, India, Israel, Japan, Netherlands, New Zealand, Nigeria, Papua New Guinea, Pakistan, Puerto Rico, Sri Lanka 등의 잡지가 The Vancouver style을 따르는데 Pakistan의 Pakistan J Med Res와 Sri Lanka의 Sri Lankan Fam Physician은 Index Medicus에 실리지 않는 잡지인데도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데 비해 우리나라 잡지는 1종도 없었다. 왜 Reference가 중요하고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지는 그 논문이 다른 연구자에 의해 다시 인용될 때를 생각하여 보면 숫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또한 의학사서의 입장

에서도 일정한 Format에 의해 작성된 Reference를 볼 때 실무에 편하다. 또한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Index Medicus에 실리려면 Reference 작성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Information Concerning Review of Publications for Indexing by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그러면 외국의 많은 잡지가 따르고 있는 The Vancouver style과 국내의학잡지의 투고규정 및 실체를 비교하여 보겠다.

먼저 잡지의 경우 The Vancouver style은 저자가 6인이나 그 이하일 때는 다 써주고, 7인이나 그 이상일 때는 앞의 3인만 쓰고, “et al”을 사용하며 공저 표기시 and를 사용하지 않고 “,”로 구별한다. 또한 저자 표기는 성의 Last name을 다 쓰고 First name과 second name은 initial을 대문자로 붙여쓰고 initial에는 period를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문헌은 저자에 대한 것은 투고 규정 자체의 참고 문헌에 관한 언급이 안되었거나, 언급이 되었더라도 실체가 지켜지지 않았다. 예를들면, 공저자를 있는대로 기록하는 경우 ; 가정의, 제명의대논문집, 기생충학잡지, 대한내과학회잡지, 대한미생물학회지, 대한정형외과학회지, 순천향대학논문집, 전북의대논문집, 한양의대학술지, Ann Dermatol, J Kor Med Sci, Seoul J Med, Yonsei Med J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들면, 기생충학잡지는 14명, 대한미생물학회지는 19명까지도 실려 있었다. 이중 제명의대논문집은 투고규정이 3인을 초과하면 “, et al”을 사용하라는 규정과 참고문헌의 표기방법은 JAMA에 준한다는 규정이 같이 있어 JAMA는 앞에서 언급한 The Vancouver style을 따르므로 6인까지는 그대로 다 써주는데, 어느 것을 따라야할지 혼란을 일으키며, 실체는 다 써준 것도 있어 투고하는 사람이 무척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and other의 뜻인 et alii의 약자인 et al의 사용시 The Vancouver Style이 저자 다음에 “,”를 쓰고 “et al”를 쓰는데 그대로 쓴 잡지는 가정의, 동아의대학술지, 부산의대학술지, 순천향대학 논문집 등이고, 인체의학은 “et al.”을 사용하여 et al을 사용한 Reference는 저자 et al.의 표기가 되고, 국내저자는 의 3인, “의”가 섞여 있었으며 일본인 저자의 경우도 외국인이라 하여 et al.이 사용되었다.

공저의 경우 The Vancouver Style은 “and”가 없이 “,”로 구별되는데 국내문헌은 최종저자가 and로 연결되어 표기되어 있었다. 예를들면 가정의, 기생충학잡지,

대한미생물학회지, 대한정형외과학회지, 이화의대지, 전북의대논문집, 한양의대학술지 등이 이에 속한다. 순천향대학논문집은 투고규정에는 and로 연결되어 있으나 실체는 “,”로 연결된 것과 “and”로 연결된 것이 섞여 있었다.

저자의 initial에 period를 사용하는 잡지는 가정의, 고려대학교의과대학논문집, 기생충학잡지, 대한정형외과잡지,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인체의학, Seoul J Med 를 제외하고는 전부 “:”으로 구별하였다.

이제 잡지명 표기인데 The Vancouver Style은 Journal의 Abbreviation은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rule을 따른 Index Medicus의 journal title abbreviation을 사용하는데 이는 Index Medicus 1월호의 List of Journals Indexed in Index Medicus를 참조하면 된다.

국내의학잡지의 Reference를 살펴보면 투고규정에 잡지명 약칭은 Index Medicus를 따른다는 항목이 있는 잡지는 제명의대논문집,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동아의대학술지, 한양의대학술지, Ann Dermatol, J Kor Med Sci 등이 있었으나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었고 잘못된 예를 들면 Br J Pharmacol을 Brit J Pharmacol로 N Engl J Med을 NEJM, Br Med J을 BMJ, J Bone Joint Surg를 JBJS, Archivers의 약자를 Archs 등으로 표기한 것이 많았다.

또한 대한정형외과학회지는 투고규정에 8개 잡지의 약자를 게재했는데 Orthop Clin North Am은 1) Orthop. Clin. N. Am., 또는 2) Orthop. Clin. North America로 표시하라고 나와 있는데 둘다 Index Medicus와는 달랐고 대한의학협회의 경우 투고규정에 Am J Med을 Amer J Med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많은 잡지가 Index Medicus와 다르게 Journal initial마다 period를 사용하였다. Seoul J Med은 Index Medicus를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Journal 약자에 peroid를 사용하였다.

The Vancouver Style은 source의 출판연도를 Journal명 다음에 쓰는데 국내잡지는 제명의대논문집,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이화의대지, 인체의학, Seoul J Med이 source 다음에 year를 썼으나 The Vancouver Style은 year 다음 semicolon을 사용한다. 비해 이화의대지는 colon을, Seoul J Med은 comma를 사용하였다.

순천향대학논문집은 투고규정은 연도가 page 뒤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Journal명 뒤에도 쓰고 있었다. ()를 사용하여 저자 다음에 발행년도를 적는 기생충학잡지도 있었다.

Reference가 보통 몇줄로 이어지기 때문에 source가 한눈에 안들어와 발행년도와 source가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였고, 외국의학잡지도 발행년도를 잡지명, 권수, 페이지 다음에 적다가 점점 잡지명 다음에 발행년도를 적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다(The Vancouver Style이 1979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므로 그 이후로 생각된다).

권, 호수 표기에 있어서 The Vancouver Style은 호수를 표기하지 않는데 비해 국내문헌은 가정의 호수(투고규정), 인간과학은 발행된 월을 표기해 주는 것이 눈에 띄었다(투고규정에는 없으나 실제로는 있었다).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article의 길이를 나타내는 page to page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외국문헌이 page to page를 적는데 비해 국내문헌중 많은 중수가 첫 page만 나타내라고 투고규정에 정해져 있었다. 예를 들면 경희의학, 고려대학교논문집, 대한산부인과 학회잡지, 부산의대학술지, 인제의학, 전북의대논문집, 한양의대학술지 등은 투고규정에 첫 page만 쓰라고 나타나 있고, 투고규정에 page to page를 쓰라고 나타나 있으나, 동의의대학술지, 순천향의대논문집 등은 첫 page만 쓴 것도 많았고, 투고규정에 첫 page만 쓰라고 되어있으나 page to page가 섞여 있는 것도 많았는데 이는 Reference를 조사할 때 반드시 page to page를 써야한다고 생각되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Journal의 Reference를 각 잡지마다 살펴보았을 때 투고규정대로 되어있지않아 투고규정없이 Reference만 보았을 때는 그 잡지의 투고규정이 어떤 것인지 알수가 없었고, 그 많은 잡지중 The Vancouver Style과 같은 것은 단 1종도 없었고,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인제의학이 그 중 유사점이 많았으나 Journal의 약칭이 Index Medicus와 다른 것이 눈에 띄었으며, 논문길이를 나타내는 page to page를 안 쓰고 article 첫 page만 쓰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역시 실제로는 규정을 다 따르지는 아니었다.

물론 외국문헌도 전부 The Vancouver Style을 따르는 않고, The Vancouver Style을 따르는 잡지도

Reference가 그대로 모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Clinical Nephrology는 맨 뒤, Journal of Clin Oncology는 저자뒤에 발행년도를 적는다든지 하였고 Annals of Internal Medicine은 The Vancouver Style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잡지명의 Abbreviation이 Index Medicus와 다른 것(예, BMJ, Ca 등) period가 다르게 찍힌 것, Anesthesiologic Clinics of North America를 단행본으로 취급한 것 등은 The Vancouver Style과 상이하였으나, 각 article이 Reference 작성법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었다.

이밖에 The Vancouver Style이 article의 성격을 나타내는 abstracts, letter는 article의 title 뒤에 ()로 (Letter) (Abstract)로 나타내 주고, 저자가 없을 때 Anonymous를 저자대신 써주고 article title 뒤에 ()로 Editorial을 써주었다.

Supplement와 part는 volume 뒤에 ()로 나타내 주며 각 issue마다 page가 새로 시작될 때는 volume 뒤에 ()로 month를 나타내 주고 있다.

외국문헌에 비하여 국내문헌의 Reference는 Supplement, Letter, Abstract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힘들어 찾고 보면 Letter의 경우도 있었고, Supplement의 표시가 없어서 엉뚱한 자료를 찾는 경우가 있었다.

다시한번 The Vancouver Style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period는 약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안 쓰고, 다음 사항과의 구별로 저자와 article title, article title과 잡지명의 구별로 쓰이며 발행년도와 권수 사이에는 semi-colon, 권수와 page 사이에는 colon으로 구별한다.

다음으로 Reference 중 단행본에 대하여 살펴보면 The Vancouver Style은 저자, 서명, 판차, 출판지, 출판사, 연도, page to page 차례로 되어있는데 저자표기, title 표기는 잡지의 저자, article title 표기와 같고 판차표기, 출판지, 출판사, 혹은 책의 한 Chapter를 인용, 총서중 1권일때, Dissertation이었을 때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판차표기의 경우 1st ed, 2nd ed, 3rd ed, 4th ed, …… 등으로 나타내어야 하는데, 7ed(가정의 Ed(경희의학,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d2, ed4(계명의대논문집), 2ed(대한미생물학회지) 3rd로 ed를 안쓴 동의의대학술지 2nd를 2d, 3rd를 3d로 표기된 것도 있었고, 일반적으로 1st edition은 그 책에는 없고 뒤에 2nd, 3rd ed이 출판

되면 자연스럽게 1st edition이 나타나는 것이 되니까 1st ed이란 말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출판지, 출판사의 경우 국내잡지중 가정의, 고려대학교의과대학논문집, 기생충학잡지, 대한미생물학회지, 동아의대지, 부산의대학술지, 인간과학, 전북의대논문집, Annals of Dermatology, Seoul Journal of Medicine 등은 출판사를 먼저 적었고, 가정의는 출판지를 가끔 ()로 표시했거나, 발행지를 안타나냈고 계명의대 논문집은 Springfield, IL로 주명까지 나타낸 것도 있었고 동아의대학술지는 투고규정에 출판사, 출판지로 나와있으나 예)에는 출판지, 출판사로 나와있어서 투고자를 혼란시켰다. 또한 인제의학은 출판지를 New York, Edinburg, London, Melbourn 이렇게 다 쓴 것도 있었다. Yonsei Medical Journal은 Raven Press의 출판지를 City of Publishing Raven Press로도 나타내었다.

출판사의 표기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형태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WB Saunders 표기가 있어서 W.B. Saunders Company, WB Saunders Co, Saunders 등으로 표기가 되어있었는데 외국의 문헌규정을 살펴보면 :

- John Wiley & Sons → John Wiley
- McGraw-Hill Book Company → McGraw-Hill
- Merriam-Webster Inc., Publishers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xford University Press → Oxford University Press
- W.B. Saunders Company → WB Saunders
- Brown & Black, Inc. → Brown & Black

단행본에서 한 Chapter를 인용했을 때 The Vancouver Style은 저자, Chapter명, 다음 In: 을 사용하여 Author, Title을 표기하는데, 국내잡지는 In “ ” 을 사용한 가정의, in 다음에 Title을 적은 계명의대 논문집, In: 다음 Title, Author순으로 적은 고려대학교의과대학논문집,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부산의대학술지, In 다음에 Title을 적은 대한미생물학회지, 순천향대학 논문집, Annals of Dermatology, Yonsei Medical Journal. :in다음 Title을 적은 이화의대지, colon을 사용하지 않은 인제의학 등이 있었다.

The Vancouver Style은 잡지와 마찬가지로 단행본도 발행년도를 page앞에 적는데 국내잡지는 가정의 대

한산부인과학회지, 대한의학협회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page 뒤 맨끝에 적었고(예 : 대한내과학회지, 대한정형외과학회지, 인제의학) 기생충학잡지는 저자뒤에 적고 있었다.

잡지와 마찬가지로 단행본도 반드시 page to page를 적는 것이 Reference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총서표기에 있어서는 The Vancouver Style이 맨뒤쪽에 ()로 Author (s) (Editor (s)), Series명, 권수로 표기한데 비해 국내잡지는 특별한 투고규정도 없었고 일정하지가 않았다.

이상 Reference를 살펴보았는데 Reference를 모은 bibliography를 살펴보면, 저자의 가나다순, alphabet 순으로 작성된 경희의학, 고신대논문집, 기생충학잡지, 대한미생물학회지, 인간과학, J Kor Med Sci, Seoul J Med, Yonsei Med J 등이 있었고 투고규정은 인용순인데 한양의대학술지는 저자의 alphabet 순으로 작성되어 국내문헌의 인용경우 이(李)는 Lee로 생각하여 L란에 배열한 논문도 있었다.

국내잡지는 국내문헌을 인용하였을 때 국내문헌을 먼저 쓰라고 하는 투고규정이 있었는데 경희의학, 대한미생물학회지, 대한의학협회지,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등이 이에 속하며 대한산부인과학회지는 가능한 한 국내문헌을 인용하라는 규정이 있었다.

이상 단행본의 Reference를 살펴보았는데 잡지의 Reference와 마찬가지로 투고규정대로 일관성있게 작성되지 않았고, 일정하고 자세한 규정이 없었다. 또한, 단행본도 page to page를 반드시 써주어야 하는데 page to page가 없는 것, 첫 page만 쓴 것 등이 있었다. 물론 책 한권을 다 인용했을 경우도 있겠지만 단행본은 page를 적지않은 논문도 있었다.

참고로 ibid는 라틴어 ibidem의 약자로 영어의 in the same place라는 뜻이고 op cit(opere citato)는 in the work cited. loc cit(loco citato)는 in the place cited 라는 뜻인데 저자명만이 상계(上揚) Reference와 같다고 하여 ibid를 써서는 안된다.

page to page를 쓸 경우 첫숫자 다음에 두자리에 걸쳐 0이 올 때는 예를 들면 pp400-402일 때 pp400-2로 하면 안되고 pp400-402로 다 써줘야 하고, 두 번째 면수가 첫수의 첫면수의 첫수보다 클 때 pp295-315일 때도 다 써주어야 한다. 그외는 뒷면수의 두자리만 써준다.

끝으로 국내 모든 의학잡지의 투고규정이 일정한 형식

으로 통일되었으면 하고, 그것이 이왕이면 외국문헌의 Reference 작성방법과 같아졌으면 하며, Reference에 저자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년도만 나와있거나 저자명, 권수, page만 나와 있는 논문은 그 논문의 진위마저 다시 생각되므로 Reference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된다고 하겠다. 또한 각 의학잡지의 편집위원회 사서도 관여하여 Reference의 교정도 정확하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끝을 맺는다.

참 고 서 적

김희보(편) 논문과 리포트-쓰기. 서울, 종로서적, 1990.
pp 23-28

Journal

(1) *Standard Journal article*—(List all authors when six or less; when seven or more, list only first three and add et al.)

You CH, Lee KY, Chey RY, Menguy R. Electrogastrographic study of patients with unexplained nausea, bloating and vomiting. *Gastroenterology* 1980; 79: 311-4.

(2) *Corporate author*

The Royal Marsden Hospital Bone-Marrow Transplantation Team.

Failure of syngeneic bone-marrow graft without preconditioning in post-hepatitis marrow aplasia. *Lancet* 1977; ii: 242-4.

(3) *No author given*

Anonymous. Coffee drinking and cancer of the pancreas [Editorial]
Br Med J 1981; 238: 628.

(4) *Journal supplement*

Mastri AR. Neuropathy of diabetic neurogenic bladder. *Ann Intern Med* 1980; 92 (2 Pt 2): 316-8.
Frumin AM; Nussbaum J, Esposito M. Functional asplenia: demonstration of splenic activity by bone marrow scan [Abstract]. *Blood* 1979; 54(suppl 1): 26a.

(5) *Journal paginated by issue*

Seaman WB. The case of the pancreatic pseudocyst. *Hosp Pract* 1981; 16(Sep): 24-5.

Books and other monographs

(6) *Personal author (s)*

Eisen HN. *Immunology: an introduction to molecular and cellular principles of the immune response*. 5th ed. New York: Harper and Row, 1974: 406.

(7) *Editor, compiler, chairman as author*

Dausset J, Colombani J, eds. *Histocompatibility testing* 1972. Copenhagen: Munksgaard, 1973: 12-8.

(8) *Chapter in a book*

Weinstein L, Swartz MN. Pathogenic properties of invading microorganisms. In: Sodeman WA Jr, Sodeman WA, eds. *Pathologic physiology: mechanisms of disease*. Philadelphia: WB Saunders, 1974: 457-72.

(9) *Published proceedings paper*

DuPont B. Bone marrow transplantation in 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y with an unrelated MLC compatible donor. In: White HJ, Smith R, eds. *Proceedings of the third annual meeting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Experimental Hematology*. Houston: International Society for Experimental Hematology, 1974: 44-6.

(10) *Monograph in a series*

Hunninghake GW, Gadek JE, Szapiel SV, et al. The human alveolar macrophage. In: Harris CC, ed. *Cultured human cells and tissues in biomedical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 54-6 (Stoner GD, ed *Methods and perspectives in cell biology*; vol 1.)

(11) *Agency publication*

Ranofsky AL. *Surgical operations in short-stay hospitals: United States 1975*. Hyattsville, Maryland: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1978: DHEW publication no (PHS) 78-1785. (Vital and health statistics; series 13; no 34.)

(12) *Dissertation or thesis*

Cairns RB. *Infrared spectroscopic studies of solid oxygen* [Dissertatio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1965. 156 pp.

Other articles

(13) *Newspaper article*

Shaffer RA. Advances in chemistry are starting to unlock mysteries of the brain: discoveries could help cure alcoholism and insomnia, ex-

plain mental illness. How the messengers work. Wall Street Journal 1977 Aug 12 : 1 (col 1), 10 (col 1).

(14) *Magazine article*

Roueché B. Annals of medicine: the Santa Claus culture. The New Yorker 1971 Sep 4: 66-81.